

Trends in China's Polypropylene (PP) Market

## 중국 폴리프로필렌(PP)시장 동향

### Writer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

### Contents

- I. 서론
- II. 시장 규모 및 동향
- III. 국가별 수입규모 및 가격 동향
- IV. 시장경쟁 동향
- V. 결론

※ KOTRA 글로벌원도우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I. 서론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은 성능이 우수한 열가소성 합성수지이다. 다운스트림 제품으로는 마대자루, 사출성형, 박막, 섬유, 강관재료 등의 형태로 포장,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방호제품 및 영유아용품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에서 폴리프로필렌(HS CODE : 3902.10)의 MFN세율은 3~6.5%이며(2020년 한·중FTA 세율은 6.5%) 제품 수입에 대해 특별한 인증은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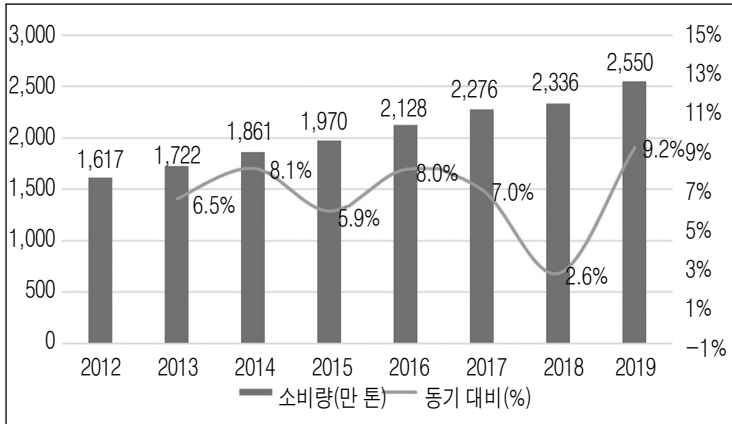
### II. 시장 규모 및 동향

의료설비, 자동차산업의 빠른 발전과 배송서비스,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PP원료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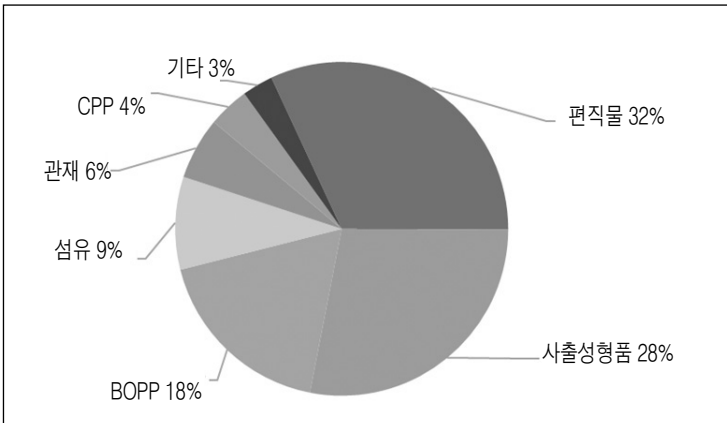
▲ PP는 멜트블로운 부직포 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요 원재료이기도 하다.

[그림 1] 2012~2019년 중국 PP 소비량



[자료원 : 쥐창즈썬, 치엔잔산업연구원]

[그림 2] 중국 PP 소비구조



[자료원 : 중국플라스틱공업 연합]

2019년 중국의 PP소비량은 2,550만 톤으로 동기대비 9.2% 증가했으며 2012~2019년의 연평균복합성장률(GAGR)은 6.8%에 달했다.

중국의 PP 소비구조에서 포장, 자동차, 가전업종은 PP의 최대 소비시장이며 편직물, 사출성형품, BOPP박막 등은 PP의 주

요 응용분야이다. 편직물, 사출성형품, BOPP는 각각 32%, 28%, 1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물티슈, 기저귀 등 위생방호용품 원료의 품귀현상이 나타났고, PP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2020년 4월 10

일, 중국 PP 분말재료의 시장 가격은 톤당 7,100~10,000위안이었으나 불과 2일 후에는 톤당 13,000~15,000위안으로 폭등했다.

앞으로 중국의 신규 PP프로젝트가 생산에 반영되면 PP의 생산능력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중국 PP생산능력은 3,500만 톤을 초과하며 자급률은 9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체품이 없는 고급제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은 기본적인 수급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III. 국가별 수입규모 및 가격 동향

2017~2019년 중국의 PP 수입 금액은 약 40억 달러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국가별 PP 수입 순위에서 한국은 24.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사우디(13%)와 싱가포르(10.1%)가 이어가고 있다.

2017~2019년 중국에 수입된 한국의 PP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28.4%에서 2019년

[표 1] 2017~2019년 중국 PP 수입규모 및 국가별 순위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금액	점유율	수입금액	점유율	수입금액	점유율
	전 세계	3,843,963	-	4,191,398	-	4,044,476	-
1	대한민국	1,091,087	28.4	1,127,314	26.9	981,615	24.3
2	사우디아라비아	621,463	16.2	650,660	15.5	524,191	13
3	싱가포르	429,581	11.2	456,237	10.9	409,354	10.1
4	대만	377,045	9.8	404,479	9.7	337,476	8.3
5	아랍 에미리트	242,982	6.3	243,405	5.8	320,691	7.9
6	태국	181,754	4.7	239,416	5.7	278,212	6.9
7	일본	179,675	4.7	209,582	5	219,329	5.4
8	베트남	91,114	2.4	140,374	3.3	166,327	4.1
9	말레이시아	51,352	1.3	125,382	3	161,579	4
10	인도	85,098	2.2	163,878	3.9	137,928	3.4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24.3%로 줄어든 반면 중동 및 동남아시아(아랍에미리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중국에 수입되는 PP 상위 10개국 가운데서 대만 제품은 1,316달러/톤의 단가로 제일 높았다. 우리나라는

1,255달러/톤으로 2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제품 단가는 850달러/톤, 969달러/톤으로 제일 낮았다.

#### IV. 시장경쟁 동향

중국은 이미 70개의 PP 생산업

체를 보유 중이다.

현재 중국석유화학(Sinopec), 중국석유(CNPC), 중국해양석유(CNOOC) 등의 국유기업과 SK-시노펙(SINOPEC-SK), 아람코-시노펙(SINOPEC-SABIC) 등 합자기업, 그리고 형리석유화학(恒力石化), 저장

[표 2] 2019년 중국 PP 수입 단가의 국가별 랭킹

순위	국가	수입단가 (달러/톤)	수입금액 (천 달러)	수입량 (톤)
	전 세계	1,159	4,044,476	3,490,914
1	대만	1,316	337,476	256,533
2	대한민국	1,255	981,615	781,936
3	싱가포르	1,204	409,354	339,928
4	사우디아라비아	1,137	524,191	461,101
5	태국	1,108	278,212	251,002
6	일본	1,102	219,329	199,054
7	인도	1,076	137,928	128,136
8	아랍 에미리트	1,004	320,691	319,486
9	베트남	969	166,327	171,586
10	말레이시아	850	161,579	189,999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석유화학(浙江石化) 등의 민영 기업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석유화학(Sinopec)의 PP 생산능력이 가장 높은 2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석유(CNPC)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PP 생산원료를 살펴보면 원유정제 설비의 PP 생산력은 1,246만 톤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고, 메탄올·석탄분해설비(MTO·CTO)의 생산력은 671만 톤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프로판 탈수소화설비(PDH)의 생산력은 230만 톤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가동됨에 따라 중국의 PP생산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생산량은 3,500만 톤을 초과하고 자급률은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PP제품 중 고성능, 고부가가치를 지닌 특수소재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 고급 혼합 PP, 박막PP 및 섬유재료는 여전히 수입제품에 의존 중이다. 해외 석유화학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판매루트는 직접 판매와 지역대리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직접 판매는 다운스트림공장의 고객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것이고 지역 대리는 에이전트 또는 장기고객을 상대로 판매 후 에이전트가 다시 다운스트림공장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 직접 판매가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V. 결론

향후 몇 년간 생산력 증대에 따

라 중국 PP시장은 점차 수급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중·저급제품은 자급자족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급 PP분야는 여전히 부족해 주로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나라 등을 통해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에서의 봉쇄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고급 PP제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화학공업 판매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국내의 소비습관과 소비패턴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펠트블로운(MB) 부직포, 복합성 포장재료, 가전제품, 자동차 내·외 부품, 어린이 카시트 및 고강성·고광택기구, 온열캔 식품포장용기 등 전형적인 분야에서의 중고급 PP제품의 활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PP제품은 기술력, 품질 및 가성비가 높아 다운스트림 공장 내 시장점유율이 크다. 즉 가격이 비싸도 여전히 사용하려는 공장이 있다. 그러나 사우디, 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의 국가도 기술을 향상시키고 가격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중국 PP시장 경쟁구도

기업유형	대표기업	시장점유율
국유기업	중국석유화학(Sinopec) 중국석유(CNPC) 중국해양석유(CNOOC)	47%
합자기업	SK-시노펙(SINOPEC-SK) 아람코-시노펙(SINOPEC-SABIC) 셸-중국해양석유(CNOOC-Shell)	41%
민영기업	항리석유화학(恒力石化) 저장석유화학(浙江石化)	12%

[자료원 : 중국플라스틱망]